

날짜 2023-01-01(D1) 본문 마21:18-22
번호 2373 설교 변일국 목사
구분 주일예배, 신년 찬송 찬550, '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'

‘열매 없는 무화과나무’

시작 주기도
찬송 찬550, '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'
기도 권영희 사모
설교 마21:18-22
찬송 찬553, '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'
봉헌 권영희 사모
광고

- ① **오늘은 2023년 1월 1일, 새해 첫날입니다**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다사다난했던 작년, 그러나 더없이 우릴 돌보신 주님이 올해에도 한결같이 여전히 우릴 돌보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.
- ② **신년 및 성찬** 오늘은 신년 첫 달 첫 주, 신년예배로 드리며, 주의 만찬(*The Lord's Supper*), 곧 성찬 있습니다.
- ③ **신년 표어와 말씀** 을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‘주님 사랑, 이웃 사랑’이며, 말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³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³⁸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³⁹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⁴⁰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(마22:37-40)

헌금기도, 축도

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

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아들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
11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
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
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(사58:10-11)

오, 주님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
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피로운
자를 돕는 일,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..

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
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,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

오,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, 오늘은 2023년 1월 1일, 신년 첫날 첫 주일,
특별히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을 본문으로, ‘열매 없는 무화과나
무’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.

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신 주님의 목적, 무화과나
무는 나 자신의 내면이며,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잎을 들추시며
자세히 열매를 찾으시는 모습은 곧 내 안에 많은 진리를 실천하여 열
매 맺는 삶이 있는가를 보심이라는 것, 나의 언행일치, 선과 진리의 하
나됨이 곧 주님이 찾으시는 양식이라는 사실, 주님의 말씀에 나무가
말라버린 것과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의 의미 등에 대해 배웠습
니다.

오, 주님, 오늘 본문 역시 그동안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이지만 그러나
그 속뜻은 참으로 놀라운, 그리고 올 한해 제 영혼의 어떤 이정표를
제시하시는,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습니다. 주님, 저는 약하오니 주님
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사 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!

간절히 기도하는, 이 자리 모인,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
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,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
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,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!